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

##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 지음 /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

04.

대리인의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2016. 10. 22(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서울교회

---



## [ 정의란 무엇인가 ]

### 04. 대리인 고용: 시장논리의 도덕성 문제

#### 시장의 역할

자유시장은 공정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또는 사면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

#### 자유시장에 우호적인 시각

##### 자유 중시

<친시장 자유지상주의자>  
\* 자발적 교환 → 개인의 자유가 존중됨  
(법으로 간섭하면 자유를 침해함)

##### 복지 중시

<친시장 공리주의자>  
\* 자유시장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  
(거래하는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음)

#### 시장 회의론자

- ▶ 시장에서 이루어 지는 선택이 겉보기처럼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
- ▶ 돈으로 거래할 경우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

\* [참고]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사적시장(private market)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

이번 장에서는 성격이 매우 다른 두 가지 행위(전쟁수행 / 대리 임신)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의 도덕적 문제를 따져보려 함

#### (1안)장병 / (2안)대리인 복무 / (3안)시장 모병제

##### ■모병제 옹호 주장■

- ▶ 자유 지상주의자: 징병제(1안)는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 부당함.(강제 징집 → 생명 위협)
- ▶ 공 리 주 의 자: 사회전체의 행복이 증진되는 쪽 옹호, 전제 공리가 좋지 않으면서 거래당사자들의 공리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함.

\* 참고: Pareto Improvement (손해 없이 최소 1인 이상 이득), Pareto optimum

∴ (3안)시장 모병제 > (2안)대리인 복무 > (1안)징병제

##### 반박

- ▶ 반박 1: 모병제는 공정성과 자유가 침해됨  
-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유시장은 그리 자유롭지 못함.  
- 기회불균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을 통한 배분은 부당한 처사.
- ▶ 반박 2: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침  
- 병역을 시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라에 봉사해야 함.  
- 시민의 의무를 거래되는 물건으로 바꾸는 행위 = 자유 침해.

\* [참고]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ve market):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함.

#### 대리출산의 사례 (계약에 대한 정의)

##### ■계약 인정 지지(1심 법원)■

- ▶ 1심 법원에서 하비 소코 판사는 계약의 존엄성을 강조함.
- ▶ 자유 지상주의 & 공리주의  
- 자유지상주의는 계약은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다고 주장 (합의는 자유의 존중)  
- 다른 사람의 공리가 좋지 않는 한, 또는 줄더라도 이익이 더 크면, 교환은 장려되어야 함.

##### 반박

- ▶ 반박 1: 합의에 결합이 있음(자발적 선택인가)  
- 어떤 선택 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주목함.(충분한 정보)  
- 부당한 압력이 없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함.
- ▶ 반박 2: 여성의 출산 능력은 사고팔수 없는 고귀한 것임.  
- 가치 부여 방식은 재화나 행위에 따라 달라야 함.  
- 존중 가치와 사용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서로 다른 방식임.

#### 외주임신

#####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 가능■

- ▶ '난자와 자궁, 한 묶음으로 구매' → '난자(주로 친모), 자궁, 다른 사람 가능'
- ▶ '개별'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대리 출산은 기존의 법적, 감정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음. (공급↑, 수요↑) 시장이 글로벌화 됨.
- ▶ 떠오르는 글로벌 산업으로 볼 수 있음.(공리주의적 관점)

##### 반박

- ▶ 반박 1  
-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역할이 들어 안된 셋(양부모, 난자 제공자, 자궁 제공자)으로 나뉘지므로 아이에 대해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이는 도덕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게 됨.  
- 여성의 몸과 출산 능력을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정의에 대해 둘로 갈라져 경쟁하는 두 가지 질문

1. 자유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2.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영예롭지 못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 04. 대리인의 고용: 시장논리의 도덕성 문제

#### 📖 Key Word 📖

공정, 자유, 복지, 친시장 자유지상주의자, 친시장 공리주의자, 시장 회의론자, 거래, 사회적 행위, 징집과 고용, 징병제, 유급 대리인 허용 징병제, 시장을 통한 모병제, 이익,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 불공정성, 강제성, 지원병과 용병, 시민의 의무, 노동시장, 대리출산, 계약과 정의, 외주 임신

자유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영예롭지 못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

#### ☞ 정의에 관한 뜨거운 논쟁에서 시장의 역할 ☜

⇒ 자유시장은 공정할까?

⇒ 돈으로 살 수 없는, 또는 사면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

(있다면, 어떤 재화이며, 그것을 사고파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

#### ● 자유시장 우호적 시각

① 자유를 중시하는 주장: 친시장 지상주의자들 견해

- 자발적 교환 → 개인의 자유가 존중됨 (법으로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됨)

② 복지를 중시하는 주장: 친시장 공리주의자들의 견해

- 자유시장이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거래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줌.

- 거래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전체 공리는 높아짐.

\*참고: Pareto Improvement(손해 없이 최소 1인 이상 이득), Pareto optimum

#### ● 시장 회의론자들의 시각

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항상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봄.

② 돈으로 거래할 경우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재화와 사회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

\*참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은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함.

## ■ 징집과 고용, 어느 쪽이 옳을까 ■

### ▶ 미국 남북전쟁 중 징병에 대한 논란

- 미국 남북전쟁에서 지원군 부족으로 징병법 도입.
- 징병은 개인주의를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리 복무 가능 양보조항 삽입.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리 복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함)
- 병역 면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제도(300달러 납부 시 징집 면제)가 인간의 목숨에 값을 매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킴('300달러냐, 당신의 목숨이냐')
- 의회는 병역 면제 비용 조항이 삭제된 징병법 제정.(북부는 대리 복무 계속됨)
- 결국, 실제로 북군에 입대해 전투를 치른 인원은 적었음.

### ▶ 병역제도에 대한 질문 던지기

- ① 남북전쟁 시 병역제도는 병역을 분담하는 정당한 방법일까?
  - 대부분 정당하지 않다고 대답: 대리인 고용 병역은 부당, 계급 차별로 여김.
- ② 그러면 징병제가 좋은지, 지금처럼 완전 모병제가 좋은지?
  - 거의 모두 모병제가 좋다고 대답함.

⇒ 그렇다면 부자들이 자신 대신 싸워줄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모병제 역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 고용방법(자기가 대리인을 찾아 돈을 지불 / 군이 모집 후 납세자가 돈을 지불)은 다르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고용해 군에 입대시키고 우리 대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음.
- \* 이 두 가지 방식이 도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리인을 고용한 제도가 부당하다면 지금의 모병제 역시 부당하지 않은가?

### ▶ 군인을 모집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징병 / 모병)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 ① 징병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 당시)
    - 군 복무에 적합한 시민을 모두 소집하거나, 또는 제비뽑기로 병사 모집.
    - 미국의 복잡한 징병유예제도로 참전 회피가 많았음.(학생, 특정직업군)
    - 베트남 전 반대 시위를 가속화함.
  - ②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대체(1973년 베트남 전 철수 이후)
    - 군이 필요한 병력을 모으기 위해 보수를 높이고 복리후생을 늘림.
    - 오늘날 지원병제 하에서 미국 군대는 사업체처럼 노동시장을 통해 병사 모집.
- ⇒ 민주사회가 군인을 모으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 계속됨.
- \* 민주사회가 시장을 통해 군인을 모으는 것이 과연 옳은가의 논쟁...



▶어떤 방법이 가장 공정할까?

- ① 징병제
- ②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남북전쟁 당시 제도)
- ③ 시장을 통한 모병제(지원자로 채우는 군대)

■ 모병제를 옹호하는 주장 ■

▶자유지상주의자

- 징병제(1안)는 강제성을 띤 일종의 노예제라서 부당함.(강제 징집 → 생명 위협)
- 시민에게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맞춰 시민을 다룰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 시민이 국가의 소유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공리주의자

- 노예제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선택권이 제한되어 사회 전체의 행복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징병에 반대할 수도 있음.
- 대리인 고용(2안)과 비교할 때, 징병제는 상호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를 감소시킨다고 주장.
- 교환의 자유는 다른 이의 공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들의 공리를 높이는 것임. ∴ 대리인 고용(2안) > 징병제(1안)
- 자발적 교환이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 모병제(3안) > 대리인 고용(2안), 즉 세 가지 안 가운데 모병제가 최고의 선택.
- 모병제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납세자의 행복이 줄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비용(부담)↓ - 강제(불쾌감)↑↑ = 불쾌감↑

▶지상자유주의 + 공리주의 논리로 생각할 경우

- 병역을 배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원자들로 꾸리는 모병제임. 다음으로 혼합형(대리인)제도이며, 징병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임.  
(모병제 > 대리인 고용 > 징병)

▶이러한 주장에 대한 최소한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함.

- ① 공정성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박.
- ②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는 반박.

## ■ 반박1: 모병제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 ■

###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박이 가능.

- 그의 선택은 자유의사에 의한 것일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처한 환경의 문제)
- 모병제는 겉보기만큼 자발적이지 않음. 사실상 강제적 요소가 존재함. 더 나은 대안을 택할 수 없어서 입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징집되는 셈임.
- 직업을 폭넓게 고를 수 있는 환경 하에서만 군 복무의 선택이 그 사람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임.(미, 모병제 군대 구성 계층의 통계에서 알 수 있음)
- 미국 사회에서 기회불균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을 통한 병역을 배분하는 것은 대안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찰스 랭글, 미. 민주당 의원: 한국 전쟁 참전, 이라크 전쟁 반대)
- 불공정성과 강제성을 지적함.(계층 간 차별, 군 복무 혜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 = 사실상 병역 강요)
- 불공평을 줄인다면 반박도 수그러질 것이지만, 완벽한 평등 사회는 없으므로 노동시장의 선택에는 늘 강제의 위험성이 있게 마련임.(평등이 어느 정도나 구현 되어야 할까?)
- 어떤 조건하에서 자유 시장이 정말로 자유로울까? 자유(공리가 아니라)를 정의의 핵심으로 보는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을 살펴봐야함.(칸트, 롤스를 다룰 때 까지 뒤로 미룸)

## ■ 반박2: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 ■

### ▶시장을 통해 배분하는 안에 대한 반박(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는 반박).

- 이 반박은 병역이 단순히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민은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음.(Only 군 복무 / 다양한 국가적 봉사 가능)
- 병역이 시민의 의무라면, 그것을 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것은 잘못임.
- 시장의 논리로 보면 배심원의 의무(죽지는 않지만, 성가심)도 거래를 통해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또한 강제적인 배심원 의무를 없애면 더 좋을 것임.
- 노동시장을 통해 사회적 공리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배심원을 징발하는 이유는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임.(단지 표결만 하는 것이 아닌, 증거와 법에 대해 함께 논의함. 각계 각층을 필요로 함)
- 시민 교육의 형식이자 민주적 시민권의 행사임.(병역 상품화는 신성한 시민의 이상을 타락하게 함)
- 시민의 의무를 거래되는 물건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침해한다고 주장.(루소, 『사회 계약론』, 1762)
- 민주사회의 시민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며, 그 의무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정의에 관한 서로 다른 이론은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내놓음..
- 군인의 징집, 고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시민 의무의 기본과 범위를 살펴본 뒤에 알아보는 편이 나을 것임.



<노동시장의 이용과 관련된 논쟁을 하나 더 살펴봄>

## ■ 돈을 주고받는 대리 출산의 사례 ■

### ▶ “대리모를 찾습니다.”

- 생화학자인 남편(윌리엄 스텐)과 소아과 의사인 아내(엘리자베스 스텐)은 아이를 갖는 것이 위험한 병을 앓고 있어서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는 불임센터를 찾아감.
- 센터는 “대리모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고,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라는 29세 여성이 이 광고에 응함.(그녀는 환경미화원의 아내이며, 두 아이의 엄마임)
- 서로 계약을 체결, 메리 베스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어머니로서의 친권을 엘리자베스 스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함. 그 대가로 1만 달러의 수수료와 의료비를 지급 받기로 함.
- 막상 출산한 메리 베스는 아이와 떨어질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스텐 부부는 메리 베스가 아이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냄.
- 아이는 스텐 부부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이후 양육권 다툼이 뉴저지 법원에서 진행됨.

### ▶ 1심 법원의 판단: 재판을 맡은 ‘하비 소코’판사는 애초의 합의에 손을 들어줌

- 1심 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옳을까?
- 계약이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주장:
  - ☞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었음.
- 그 계약을 강제하기가 망설여지는 두 가지 이유:
  - ① 계약 당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았을지 의문이 듦. 아기를 넘겨줄 때, 어떤 느낌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돈이 궁한 처지에서 판단이 흐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 ② 양쪽이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 했더라도, 아이는 사고팔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주는 행위자체에 반대함. 아이를 상품으로 전락시킴, 임신과 출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여성을 착취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 하비 소코 판사는 계약의 존엄성을 강조, 계약은 계약이므로,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생모가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고 본 것임.
- 판사는 두 가지 반론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음.
  - ① 메리 베스의 동의가 덜 자발적이어서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거부했음.
  - ② 대리 출산이 아기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견해에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냄.(1만 달러는 서비스(임신)에 지급한 수수료지, 생산물(아기)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아님)

▶메리 베스는 뉴저지 대법원이 상고함

-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소코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함.
- 한편 아이에게 이름다는 이유로 양육권은 아버지인 윌리엄 스텐에게 줌.
- 계약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스텐부부가 아이를 더 잘 키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메리 베스에게는 어머니의 지위를 돌려주며 그녀에게 방문권을 부여함.
- 대법원장 '로버츠 월렌츠'는 판결문에서 대리 출산 계약에 반대 의견을 내놓음.
- 계약에 결함이 있다고 봄. 모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메리 베스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발적이지 않다고 주장.
- 돈이 필요해서 가난한 여성이 대리모가 되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음.
- 근본적으로는 상업적인 대리 출산이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아기를 파는 행위는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고 주장함.(대리 출산 주장에 대한 반박)

■ 대리 출산 계약의 정의 ■

▶'아기 M' 사건에서 옳은 쪽은 어느 쪽일까? (1심 법원: 계약 인정 / 대법원: 계약 무효)

-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계약의 도덕성 여부와 대리 출산 계약에 대한 두 가지 반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함.

▶대리 출산 계약을 지지하는 주장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 자유지상주의는 계약은 선택의 자유를 반영한다고 주장.(합의는 자유의 존중임)
- 다른 사람의 공리가 줄지 않는 한(줄더라도 이익이 더 크다면) 교환은 장려되어야 함.

▶반박1: 합의에 결함이 있다

-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주목해야 함.(진정한 자발적 선택인가?)
- 부당한 압력(돈이 급박함 등)이 없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외견상 자발적으로 보이는 합의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존 롤스의 정치철학: 자유를 중시하는 쪽이면서도 정의에 관한 자유지상주의 주장에는 반대함.(참고: 존 롤스의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임,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함)

▶반박2: 여성의 출산 능력은 사고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 가치 부여 방식은 재화나 행위에 따라 다름.(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선 안 됨)
- 인간을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존중 가치와 사용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서로 다른 방식임.
- 상업적 대리 출산은 아기를 상품으로 비하하고,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함.



- 앤더슨의 주장: 정의가 단지 고통의 양으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써 고통이나 쾌락을 통일된 잣대로 무게를 달면 그만이라는 공리주의에 반대함.
- 각각의 재화와 사회적 행위에 걸맞은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접근법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① 자유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함.(인간은 자유를 누릴 자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 받아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 -칸트- / ② 재화와 사회적 행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에 달려있음. 즉, 어떤 사회적 행위의 기준을 찾으려 할 때, 그 행위의 특수한 목적(예: 어머니와 아기의 감정적 유대) 혹은 목표부터 파악해야 함. -아리스토텔레스-
- ☞ (뒤에 나올 장에서 살펴볼 것임) / 이러한 도덕적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떤 재화나 사회적 행위가 시장원리에 따라도 좋은지 올바로 판단할 수 없음.

## ■ 외주 임신 ■

### ▶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 가능

- ‘난자와 자궁, 한 묶음으로 구매’ → ‘난자(주로 친모), 자궁, 다른 사람 가능’
- ‘개별’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대리 출산은 기존의 법적, 감정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었음. (공급↑, 수요↑) 시장이 글로벌화 됨.
-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역할이 둘이 아닌 셋(양부모, 난자 제공자, 자궁 제공자)으로 나뉘지므로 아이에 대해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이는 도덕적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게 됨.
- 대리 임신을 결정한 여성은 분명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공리주의적 시각에서는 떠오르는 글로벌 산업으로 볼 수도 있음),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대리 임신 산업화는 여성의 몸과 출산 능력을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대리인 징병, 대리 출산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음  
이들 사례에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다보면,  
**정의에 대해 둘로 갈라져 경쟁하는 두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됨.

1. 자유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2. 세상에는 시장에서 취급하는 것이 영예롭지 못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덕과 고귀한 재화가 존재할까?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

##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 팀 켈러 지음 / 최정훈 옮김 -

part one

뿌리칠 수 없는 네가지 도전

4.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왜 사마리아인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가?

2016. 10. 22(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서울교회

---



## [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

### 4.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가?

자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36)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좇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임.

모세 율법(레 19:18)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거듭 등장함(마5:43; 마19:13; 롬13:9; 갈5:14; 약2:8).

크리스천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가장 명확하게 알려 주는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도덕률임.
- 율법을 사용해 죄에 물든 인간에게는 제 힘으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선포하심.
-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구원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는 도덕주의의 문제점은 위선적임.(도덕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인종적으로 '잡종'이고 신앙적으로 '이단'이었음.(반감↑↑↑)
-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 곤경에 빠진 상대의 물질적, 신체적, 경제적 필요를 온몸으로 채워준 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그 물음에 답하심.
-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웃 사랑

- 그리스도는 인간의 입장이 되어 인류의 고난에 동참하심.
- 우리는 죄에 빠져 영적인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님은 친히 다가 오셔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음. (우리는 평생 원 없이 누리고 영원토록 즐기며 살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내팽개쳐 버렸음)
- - 에드워즈는 자비가 흘러가는 길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함.

**'선한'을 넘어 '위대한' 사마리아인**

- ✓ 그리스도는 친히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길을 따르셨음.
- ✓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음(롬 5:10).
- ✓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위험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음.(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투사된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심)
- ✓ 예수님이 부어 주시는 한없이 높고 깊은 이웃 사랑을 실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팀 켈러 지음 / 최종훈 옮김

### 4.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가?

#### 📖 Key Word 📖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냥 '모든 이들', '선한'을 넘어 '위대한' 사마리아인

자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 ☞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좇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임.
- ☞ 모세율법(레 19:18)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거듭 등장함(마5:43; 마19:13; 롬13:9; 갈5:14; 약2:8).
- ☞ 크리스천이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가장 명확하게 알려 주는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임.

#### ■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

- ⇒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청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누가복음 10:25)
  -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트리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기록함(누가)
  -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도덕률임.
  -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구원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는 도덕주의의 문제점은 위선적임.(도덕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
  - 바리새인은 율법의 세부 규정을 준수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음, 철저하게 '준법'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용납 받을 만한 인간으로 자부함.
  - 삶을 통째로 드린다면, 영원한 삶을 누릴 자격을 확실히 갖출 것임.
  - 이는 불가능하리만치 높은 기준인데 거기에 핵심이 있음.
  - 율법을 사용해 죄에 물든 인간에게는 제 힘으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선포하심.(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도록 하심)
  -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른 구실을 찾아 되받아 치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질문을 함.
  -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명령을 축소, 선행을 거듭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인생관을 고수하고 싶었던 것임.



## ■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

⇒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심.

-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원수지간.
-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인종적으로 '잡종'이고 신앙적으로 '이단'이었음.(반감↑↑↑)
-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이웃사랑 의미?)
- 곤경에 빠진 상대의 물질적, 신체적, 경제적 필요를 온몸으로 채워준 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므로써 그 물음에 답하심.(사랑하라는 명령의 참뜻을 제한하려 드는 율법교사의 입을 막으심)
-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하심.
- 유대인을 돕는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음.
- 누가됐든 곤궁한 처지에 빠진 이들이 바로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그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것임.
-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임.

## ■ 조나단 에드워즈 말하는 이웃 사랑 ■

⇒ 자기 문제라면 '벼랑 끝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든 손을 쓰려고 하면서, 왜 이웃에게는 굶어죽을 지경이 돼야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궁홀히 여길 줄 아는 수준까지 변화되지 못했음)

- 그리스도는 인간의 입장이 되어 인류의 고난에 동참하심.
- 진정한 사랑에는 모험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주는 중요한 교훈임.

⇒ 에드워즈가 자주 부딪혀야 했던 두 가지 반대 의견.(싱글 맘에게 도움을 주지 말자던 집사들의 논리)

- ① 가난한 이들은 성질이 나빠서 '고마워할 줄' 모름.
  - ② '제 잘못으로' 궁핍해진 걸 어찌겠느냐.
- 빈곤의 요인은 복잡하고 복합적임.
  - 두 가지 반대 논리에 대한 제압: 그리스도는 가지지 않고 보살펴 주심.
  - 우리는 죄에 빠져 영적인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님은 친히 다가 오셔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셨음.(우리는 평생 원 없이 누리고 영원토록 즐기며 살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내팽개쳐 버렸음)
  - 에드워즈는 자비가 흘러가는 길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함.

## ■ '선행'을 넘어 '위대한' 사마리아인 ■

⇒ 예수님이 비유에 심어두신 가장 큰 '반전' 유대인의 역할.

- 이 이야기는 유대인, 그 가운데서도 율법교사 들에게 들려주신 점.
- 희생자 역할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는데, 청중들에게 스스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보기를 권하신 것임.
- 사마리아인이 발길을 멈추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 예수님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눅 10:36)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셨음.(율법교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장면임)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율법교사는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못했음.
- 어려운 상황에 빠진 모든 이들이 ‘이웃’이라는 게 분명해졌음.

⇒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길에서 죽어 가고 있는 존재임.

- 영적으로 보자면 ‘허물로 죽은’(엡 2:5) 자들 임. 그러나 그리스도는 친히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길을 따르셨음.
-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음(롬 5:10).
-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위험을 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음.(예수님은 선행 사마리아인에 투사된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심)

⇒ 이웃 사랑을 베풀기 전에 우선 그 사랑을 받아야 함.

- 예수님이 부어 주시는 한없이 높고 깊은 이웃 사랑을 실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